www.GungPlant.co.kr
시원하게! 편안하게! 부드럽게! 진료하는
궁플란트치과의원
TEL. 02-722-2870 조계사 앞 사거리, 1호선 종각역 2번 출구 앞

佛敎新聞

대승투어 daeseungtour
신심깊은 불자들의 여행사
여법한 순례 품격있는 여행
☎ 1577-0206 www.대승투어.com

1960년 1월 1일 창간 주2회 발행
불기 2556년 10월 24일 (2012년 / 단기 4345년 음력 9월10일)
bulgyo.com
대표전화 (02)730-4488 제2858호 수

"힘 내셔요"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자승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지난 18일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로 마을을 떠나 임시거처에 머물고 있는 봉산리와 임천리 주민들을 찾아가 위로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왼쪽에서 첫번째)은 주민들의 피해상황을 경청하고 "힘 내시라"고 격려했다. 봉산리 주민 120여 명은 구미환경자원화시설에, 임천리 주민 190여 명은 해평청소년수련원에서 생활하며 집으로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구미=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10·27법난위원회 파견 현역 군인 철수시키라"

총무원장 자승스님, 총리·국방장관에 공문

종단이 국무총리 소속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법난위원회)에 파견 근무 중인 현역 군인에 대한 철수를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는 총무원장 자승스님 명의로 가해자 격인 군인들이 피해자를 심사하는 일은 부당하다며 위원회 내 군인(예비역 포함)들의 즉시 철수를 요구하는 공문을 지난 17일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에게 각각 발송했다.

이에 앞서 중앙종회는 지난 9월19일 제191회 임시회에서 10·27법난 피해보상 관련법 개정과 함께 군인들의 철수를 요청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그간 위원회에 파견된 영관급 장교들은 피해자 판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보직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 위원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한편 법난위원회는 지난 18일 제22차 회의를 개최하고 피해종교단체인 조계종의 법적 실체를 법난 당시 조계종 종헌이 규정한 범주로 의결했다. 이는 당시 종단에 소속된 산하기관 및 단체들도 피해범위로 포함하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향후 법 개정 여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32주년 기념식…26일

이와 함께 조계종 총무원과 법난위원회는 오는 26일 오후6시30분 서울 조계사 앞마당에서 10·27법난 32주년 기념식을 거행한다. 이날 기념식은 1부 기념법회와 2부 추모음악회로 나뉘어 진행되며, 기념식에 앞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법난 피해 스님들을 초청해 위로하고 명예회복 활동경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나를 위한 행복한 습관' '템플스테이 시즌2' 시작된다

불교문화사업단 31일 향후10년 비전 선포

개인 사회갈등 해소 힐링 담당…공익기여

템플스테이 시즌2가 시작된다.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법진스님)은 지난 17일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에서 템플스테이 10주년을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앞으로는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한 습관으로 템플스테이를 생활화하겠다"며 "개인과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힐링까지 담당하는 공익적 역할을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불교문화사업단은 참가자 유형과 특성에 맞춘 세분화된 프로그램 개발, 템플스테이 운영인력의 안정화 및 사찰별 프로그램 체계화, 외국인 운영사찰을 중심으로 한 특화 프로그램 및 전담인력 관리 등을 중장기 핵심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템플스테이 1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10년 후 미래 비전을 고민하는 특별한 법석도 마련한다. 불교문화사업단은 오는 31일 오후4시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전통문화공연장에서 '템플스테이 10주년 비전선포식'을 개최한다.

지난 10년의 여정을 축하하고 새로운 비전을 조명하는 이날 선포식에는 템플스테이의 지난 발자취와 성과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영상상영과 함께 피아니스트 이루마와 불자로 잘 알려진 가수 루시드 폴의 축하공연도 준비돼 있다.

또 불교문화사업단은 다양한 문화체험 및 전시행사를 통해 템플스테이 10주년을 기념한다. 11월1일부터 4일까지 조계사에서 전통한지 만들기, 인경, 탁본과 윤장대 돌리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사찰음식 전시회도 진행한다. 사찰음식 원형을 재현한 전시와 현대적인 사찰음식소개를 비롯 전통차 시음 및 곰취장아찌 쌈밥 시식 코너도 마련했다. 식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해 행사에 참여한 불자와 시민들과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서약한다.

템플스테이의 지난 역사를 한 눈에 보는 전시회도 마련된다. 오는 31일부터 12월2일까지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1층 홍보관에서는 템플스테이 관련 행사와 영상물, 주요언론 보도기사들이 전시된다. 이와 함께 현대미술과 템플스테이가 만난 '스스로 마음을 일깨우다-스.마.일' 전도 눈길을 끈다. 아트블렌더 파랑캡슐이 함께 하는 이번 전시회는 서울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열리며, 젊은 미술가 8인이 참여해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를 준비하는 두달간의 여정을 담은 사진과 영상도 전시된다.

이에 앞서 불교문화사업단은 오는 29일 템플스테이 10주년 기념음반을 발매한다. 루시드 폴이 작사 작곡하고 가수 이효리가 부른 '다시 만날 때까지'를 비롯해 이루마 연주곡 등 총 6곡이 수록돼 있다. 발매된 앨범은 전국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에 배포될 예정이다.

불교문화사업단장 법진스님은 "설레는 마음으로 10년 계획을 준비했다"며 "템플스테이가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서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어현경 기자 eonaldo@ibulgyo.com

조계종 '석보체' 개발 착수

〈전통불교문화서체〉

"석보상절 복원 재탄생"

내년 한글날 공식 발표

전통불교문화서체 '석보체' 개발이 추진된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부장 진명스님)는 종단의 문화적 정체성 함양과 대사회적 이미지 향상을 위해 전통불교문화서체인 '석보체' 개발사업을 시행, 내년 한글날 공개하겠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석보체' 개발은 종단이 추진하게 될 전통문화서체 개발의 첫 번째 사업으로 한글로 만든 최초의 금속활자본 〈석보상절〉을 복원하여 현대적으로 재탄생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향후 국고 등의 예산확보를 통해 〈능엄경〉〈금강경〉〈천수경〉 등의 언해본을 순차적인 서체로 개발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전통불교문화서체 개발은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전통문화 원형을 토대로 새로운 콘텐츠를 재탄생시키고 활용까지 이르는 등 보다 실용적인 문화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석보체'는 스마트폰에서 사용가능한 트루타입으로 종단의 문장 개발 경험이 있는 안그라픽스 안상수 교수측과 호흡을 맞춰 진행하고 있다. 석보체는 내년 3월경 사용빈도수 높은 2350자를 우선 완성하여 부처님오신날 디자인가이드에 반영할 예정이며 7월경 1만1172글자 개발이 완료되면 2개월간 종단 내부 테스트를 거친 뒤 2013년 10월9일 한글날 종단 대내외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문화부는 "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금 1억원을 쾌척해주신 범어사 주지 수불스님께 감사드리며 '석보체'가 한글보급 최초의 언해서인 〈석보상절〉의 의미를 되살리고 종단의 이념과 가치를 표현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콘텐츠로서 종단의 대사회적 이미지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정은 기자

총무원장 선출방법 공청회

조계종 종단쇄신위원회(위원장 밀운스님)가 '총무원장,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를 주제로 오는 24일 오후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현행 총무원장 선거법의 의미와 특징, 한계를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불교사회연구소장 법안스님의 사회로 중앙종회의원 원경스님이 '직선제 도입', 조계종 종책특보 덕문스님이 '간선제 확대', 중앙종회의원 주경스님이 '현행 간선제 유지 및 축소'에 관해 각각 발제하고 의견을 개진한다.

장영섭 기자

社告

2013 불교신문 신춘문예 공모

[불교신문은 불교문학 신예작가 등용문인 '2013 불교신문 신춘문예'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한국불교 문단에서 수많은 문인을 배출해 온 역사와 전통의 불교신문 신춘문예에 불교문학에 관심 있는 신진작가들의 응모를 기대합니다.]

- 응모기간 : 2012년 11월 12일(월)~12월 12일(수)까지
- 응모대상 : 불교문학에 관심이 깊은 신진작가
- 공모분야
  - 단편소설 부문(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 시·시조 부문(각 5편, 5편이상은 접수받지 않습니다)
  - 동화 부문(200자 원고지 30매 내외)
- 상 금 : 단편소설 600만원
  동화 400만원
  시·시조 400만원
  당선작은 각 분야에서 1편을 선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가작 선정
- 당선작발표 : 2013년 1월1일 신년특집호
- 접 수 처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전법회관 불교신문사 신춘문예담당
- 유의사항
  1. 겉봉투에 신춘문예 현상공모작품(응모분야포함)임을 명시해주십시오.
  2. 기 발표 원고 및 표절, 타 신문이나 잡지에 중복 응모된 작품임이 밝혀지면 당선이 취소됩니다.
  3. 마감일 18시 이전 도착분 작품에 한하며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수상작에 대한 판권은 본사가 소유합니다.
  5. 작품 맨 첫 장에 별도로 응모분야, 인적사항(본명, 나이, 주소, 연락처)을 기입해 주십시오. (작품내용 안에 인적사항 명기하지 마십시오)
  6. 우편접수와 내방접수만 가능합니다.
     단, 해외에서 응모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인터넷 접수를 받습니다. (skykim2000@ibulgyo.com)
- 문 의 : (02)730-4488(신춘문예 담당)

불교신문사

경허의 생애와 사상 토론회 및 경허선사 열반 100주년 기념탑 제막식

한국불교 중흥조 경허선사가 견성 후 보임(保任)하고 18년간 주석하신 천장암에서 경허 선사의 생애와 선 사상에 대한 학술 토론회를 열고자 합니다. 천장암은 당대 선림의 우뚝한 봉우리였던 선장(禪匠) 수월, 혜월, 만공 스님의 출가, 수계 도량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천장암에는 경허 선사가 주석했던 1평 남짓한 방이 옛 모습 그대로 보존돼 있습니다.

아직도 일각에서는 경허선사의 지계(持戒) 일탈(逸脫)을 자신의 좁은 안목으로 그 상외지상(象外之象)을 읽지 못하고 파계 운운합니다. 이는 근세 한국 선불교의 중흥조로 위상이 정립된 선사의 법은(法恩)을 저버리는 구업(口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도(悟道)한 경허 선사의 무애행(無碍行)은 결코 파계가 아니었습니다.

상식으로 헤아리기 어려운 일화와 일탈 속에 번뜩이는 기봉(機鋒)은 참으로 역대 조사의 가풍(家風)이고 찬란한 선림(禪林)의 전등(傳燈)이었습니다. 무사자오(無師自悟)한 경허 선사께서 우뚝 나타나 불조의 혜명을 이으셨기에 한국불교의 승가는 모두가 경허 선사의 법손들이라 할 수 있으며 우바새, 우바이 또한 모두 경허선사의 법은(法恩)을 입고 있습니다.

선사는 분명 선불교 조사(祖師)의 반열에 서 있는 선지식입니다. 선사의 선사상을 올바로 읽고 볼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경허의 선사상 토론회를 천장암에 있는 선사의 작은 방 앞에서 갖고자 하오니 사부 대중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천장암에서는 경허선사의 행적을 연구하고 가르침을 계승하기 위하여 "깨달음의 길"을 조성하고 경허스님의 생가를 복원하여 대한민국 모든 불자들의 "성지순례 코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 : 10월 27일(土) 오후 3시 | 천장암(충남 서산) | ☎ 041-663-2074

경허대선사께서 조선말기에 올연히 세간에 오시어 철저한 깨달음으로 꺼져가는 선의 법등을 밝히시고 열반에 드신지 100주년(周年)이 되었습니다.
선사께서 오후보림(悟後保任)하시고 18년간 주석(主席)하셨던 서산시 고북면 연암산 천장암에서는 열반 100주년 기념탑을 조성하여 그 제막식을 아래와 같이 봉행하고자 하오니 많이 동참하시어 법석을 더해주시기 앙망하나이다.

제막식
*일 시 : 2012년 10월 27일(土) 오후 2시
*장 소 : 천장암(충남 서산시 고북면 장요리)
*문 의 : 종무소 041-663-2074
증 명 : 설정(덕숭총림 방장)
기념사업회장 : 지운(수 덕 사 주지)
추진위원장 : 옹산(천 장 암 회주)

경허선사 열반 100주년 기념 사업회 회 장 지운(수덕사 주지)
경허선사 열반 100주년 기념탑 건립 추진위원장 옹산(천장암 회주)